

생산공정의 전문화에 기초한 무역이 발전도상나라들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

고 은 덕

1. 서 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본주의경제에 대한 연구를 잘하여야 합니다.》(《김정일전집》 제26권 107페이지)

지금 세계적으로 나라들사이의 생산적연계는 지난 시기에 비하여 비할바없이 밀접해졌다. 원료채취로부터 최종완제품생산까지의 전반적인 생산공정이 한 나라에 집중되어있던데로부터 나라들사이의 생산공정의 전문화로 이행하는것이 하나의 흐름으로 되고있다. 나라들사이의 생산적연계의 이와 같은 변화는 필연적으로 국제무역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여러가지 문제를 산생시키고있다.

현시기 국제무역분야에서는 생산공정의 전문화에 기초한 무역(Global Value Chains)의 거래액이 점점 늘어나고있다. 이 무역방식은 나라들사이에 생산공정이 전문화되고 제품생산에서 나라간 생산적연계가 보다 밀접해진데로부터 확대되고있는 무역방식으로서 개별적나라들의 경제발전에 여러가지 영향을 주고있다.

본문에서는 우선 현시기 국제무역에서 활발히 진행되고있는 생산공정의 전문화에 기초한 무역의 구조적특징을 해명하려고 한다. 또한 생산공정의 전문화에 기초한 무역이 발전도상나라들의 경제구조와 경제발전의 안정성, 소득 및 무역이익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려고 한다.

2. 본 론

2.1. 생산공정의 전문화에 기초한 무역에 대한 일반적리해

생산공정의 전문화에 기초한 무역(GVCs)은 세계적범위에서 여러 나라들이 완제품생산을 위한 밀접한 생산적연계를 맺고 매개 나라들이 완제품생산에 필요한 개별적인 생산공정에 전문화되어 해당한 부분품을 가공수출하는 무역이라고 할수 있다.

GVCs는 새로운 형태의 무역이 아니며 나라들사이의 생산적연계에 기초한 무역거래는 이미전부터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나라들사이의 밀접한 생산적연계를 유지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것으로 하여 이러한 무역거래는 국제무역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였다.

현시기 나라들사이의 생산적연계를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이 감소되면서 개별적나라들이 특정한 생산공정이나 반제품 및 부분품의 생산에 전문화되게 되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많은 투자가 요구되는 전체 생산공정을 구축하고 여기에서 생산된 완제품을 가지고

다른 나라들과 거래하는 전통적인 무역방식대신에 생산공정의 전문화에 기초한 무역이 적은 비용으로 국제무역에 적극적으로 참가할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정되고있다.

세계적으로 GVCs에 대한 학술적연구는 새 세기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GVCs에 대한 연구에서 중요하게 제기되는 문제는 발전도상나라들이 GVCs로부터 실질적인 이익을 얻고있는가, 그것이 실지로 해당 나라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것이다.

선행연구들에서는 발전도상나라들의 총무역량에서 GVCs가 차지하는 비중의 증대, 발전도상나라들의 GVCs지수의 체계적인 장성, 발전된 나라들에 비한 발전도상나라들의 GVCs의 높은 장성률, 발전된 나라들사이의 GVCs감소와 발전도상나라들사이의 GVCs의 확대 등을 근거로 발전도상나라들이 GVCs에서 이익을 보는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들은 해당 나라의 경제발전을 종합적측면에서가 아니라 특정한 부분품이나 반제품의 무역거래라는 협소한 범위내에서 평가한것으로서 그자체만으로는 GVCs가 발전도상나라들의 경제발전에 주는 영향을 원만히 해명할수 없다.

GVCs가 발전도상나라들의 경제발전에 실질적인 이익을 주는가를 평가하자면 GVCs와 해당 나라 경제발전사이의 관계가 종합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GVCs가 발전도상나라들의 경제구조와 경제발전의 안정성, 소득 및 무역이익분배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는것이라고 볼수 있다.

2.2. 현시기 생산공정의 전문화에 기초한 무역의 구조적특징

GVCs의 구조적특징은 무엇보다먼저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을 중심으로 하고 여기에 많은 발전도상나라들이 편결되어있는 형식으로 거래관계가 형성되어있는것이다.

현시기 GVCs의 거래건수와 규모를 놓고볼 때 몇몇 나라들을 중심으로 많은 나라들이 서로 편결되어있다. 여기에서 중심에 있는 나라들은 도이칠란드, 프랑스 등과 같은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이고 이 나라들을 축으로 하여 수많은 발전도상나라들이 GVCs거래망에 편결되어있다.

세계적으로 GVCs가 활발히 진행되는 지역을 보면 크게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지역으로 구분해볼수 있다.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에서 GVCs가 급속히 발전하고있다.

2000년-2009년기간에 국내에서 생산하여 거래상대방나라들에 수출한 반제품 및 부분품의 측면에서 볼 때 아시아의 여러 나라와 지역들의 GVCs가 증대되었다. 실제로 2000년부터 2009년기간에 GVCs와 관련한 일부 나라들의 무역량은 13.5%, 22.8%로 장성하였다.

유럽지역에서 반제품 및 부분품에 대한 무역거래가 활발히 진행되는 나라들은 영국, 도이칠란드, 프랑스이다. 유럽에서 상대적으로 수출규모가 작은 나라들은 수출품구성에서 제조품의 비중이 높으며 연구 및 개발에 대한 투자뭉도 높다. 한편 수출규모가 보다 큰 나라들은 수출총액에서 상대적으로 제조품과 봉사의 비중이 높다.

GVCs의 구조적특징은 다음으로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이 강한 지배력을 행사하면서 GVCs를 좌지우지하고있는것이다.

현재 국제시장에서는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의 기업들이 높은 시장점유율과 강한 시장지배력을 소유하고있다. 그러므로 발전도상나라들의 기업들은 발전된 자본주의나라 기업들과 생산기술적연계를 맺고 그들에게 필요한 반제품이나 부분품을 생산납입하는 방식으로 국제시장에 진출하는것이 효과적이다.

발전도상나라들의 기업들은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의 기업들과 일단 GVCs를 위한 생산기술적관계를 형성하면 해당 시장에서 자기들의 지위와 역할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독점기업들이 소유하고있는 제품설계, 새 기술, 상표, 소비자수요와 관련한 정보 등을 리용하려고 한다. 그것은 이러한 요소들이 시장에서 해당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끊임없는 광고활동과 같이 많은 시간과 막대한 비용지출을 요구하는 각이한 시장활동을 통하여 형성되며 쉽게 모방할수 없기때문이다.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의 독점기업들은 경영활동의 다양한 측면들에서 발전도상나라 기업들의 이와 같은 시도들을 조정하면서 GVCs거래체계에 발전도상나라들을 결합시키고있다. 결과 발전도상나라들은 GVCs거래체계에서 주도적지위를 차지하고있는 독점기업들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생산과 판매를 진행하거나 봉사를 제공하게 된다.

GVCs거래체계에서 주도적인 기업들은 대체로 유통, 금융, 설계, 광고 등과 같은 상품제조 및 판매의 앞단계나 뒤단계에 집중되어있다.

GVCs거래체계에서 차지하는 주도적회사들의 위치와 역할에 기초하여 GVCs는 생산자주도형과 구매자주도형으로 구분할수 있다.

생산자주도형 GVCs에서 보통 대규모의 다국적제조업체들은 생산망의 형성에서 기본 역할을 하며 주요부분품들의 공급을 책임진다. 이러한 현상은 자동차, 비행기, 컴퓨터, 반도체, 중기계 등과 같은 자본 및 기술집약형산업에서 보편적이다. 생산자주도형의 GVCs에서 리운분배의 크기는 자본의 규모와 거래량, 기술발전정도에 관계된다.

구매자주도형 GVCs에서 주도적회사들은 대규모소매업체, 판매업체, 유명한 상표를 가지고있는 제조업체들이다. 여기서 리운은 설계, 판매, 시장활동, 금융봉사의 결합에 기초하여 형성된다.

이러한 GVCs에서 주도적회사들은 상품생산 그자체에는 관여하지 않으며 오직 생산이 진행되는 발전도상나라들의 계약당사자들에게 체계화된 설계명세들만을 제공한다. 구매자주도형 GVCs는 보통 피복, 신발, 놀이감, 수공업품, 전자제품 등과 같은 소비품산업에 존재하며 여기서 그들은 정보적우세를 리용하여 전통적인 제조업체들을 몰아냈다. 이러한 GVCs에서 소매업자들은 상품식별기술, 판매시점검사기술 등 선진기술을 리용하여 제품판매와 관련한 즉시적이며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해당 제품의 공급자들에게 제공한다. 수요변화추세를 장악하는것은 그 변화에 즉시 대응하는것을 가능하게 하며 나아가서 공급자들이 재고를 관리하도록 하여 수익을 늘리고 위험을 줄일수 있게 한다.

2.3. GVCs의 구조적특징이 발전도상나라들의 경제에 주는 영향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을 중심으로 하여 형성되고 GVCs와 관련한 공급망에서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의 지배력이 강한 GVCs의 구조적특징은 발전도상나라들의 무역과 국내경제발전에 여러가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첫째로, 발전도상나라들의 대외무역과 경제발전에서 국제시장에 대한 의존성을 심화시키는것이다.

발전도상나라들이 GVCs에 참가하면 필연적으로 그 나라들의 대외무역은 물론 경제발전도 국제시장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면서 세계경제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된다. 결국 국제시장경기에 따라서 발전도상나라들의 대외무역과 경제발전정도가 좌우되게 된다.

어느 한 나라 기업들의 무역활동자료를 분석해본데 의하면 2008년말에 발생한 국제금융위기의 영향으로 GVCs가 전통적인 무역보다 더 급속히 감소되었으며 그 거래규모도 훨씬 더 축소되었다. 한편 시간이 흐르면서 국제시장경기가 호전됨에 따라 GVCs가 전통적인 무역에 비하여 더 빠른 속도로 회복되었다.

GVCs가 전통적인 무역에 비하여 국제시장경기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되는 원인은 GVCs에서 나라들사이에 매우 밀접한 생산기술적연관관계가 존재하는데 있다.

GVCs에서는 나라들사이의 생산기술적연계가 긴밀하므로 특정한 나라에서 발생한 경제위기는 곧 다른 나라들에도 급속히 전파되게 된다. 실제로 완제품의 최종소비단계에서 발생한 수요저하현상은 비록 그 규모가 작다고 하여도 완제품생산에 필요한 반제품 및 부분품을 생산하는 나라들에서의 수요저하현상으로 이어지며 이것은 점차 세계적범위에서의 수요저하현상으로 확대되게 된다. 이것은 GVCs에서 나라들사이에 존재하는 긴밀한 생산기술적연관관계가 한 나라에서 발생한 경제위기가 즉시로 전세계적인 경제위기로 확산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발전도상나라들이 GVCs에 참가하는 경우 국제시장경기가 이 나라들의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진다. 다시말하여 GVCs는 발전도상나라들에서 국제시장경기변화에 의한 경제발전의 파동성을 심화시킨다.

발전도상나라들에서는 경제가 다방면적으로 발전되지 못하고 경제발전수준이 낮은데로부터 일단 GVCs가 확대되게 되면 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게 된다.

이와 같이 GVCs는 국제시장경기의 영향을 심하게 받으므로 GVCs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발전도상나라들의 경제발전은 국제시장경기가 변할 때마다 심하게 파동하게 된다. 발전도상나라들에서 경제발전의 파동성은 GVCs에 대한 이 나라들의 참가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크게 나타난다. 세계 여러 나라의 전문가들이 2001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간에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과 발전도상나라들에서 국제시장경기변화에 의한 국내경제발전의 파동정도를 대비해본데 의하면 발전도상나라들에서 경제발전의 파동성이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에서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이처럼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을 중심으로 하여 형성되고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이 강한 지배력을 행사하고있는 GVCs의 구조적특징은 발전도상나라들의 대외무역과 경제발전에서 국제시장경기의 영향을 더욱 심화시키고있다.

둘째로, 발전도상나라들의 산업구조를 기형화시키는것이다.

발전도상나라들에서 특정한 산업분야에서만 GVCs가 확대되면 다른 산업부문들과의 불균형이 조성되면서 산업구조가 기형화될 수 있다.

GVCs의 확대에 의하여 산업구조가 기형화되는것은 우선 발전도상나라들에서 GVCs를 위한 산업부문이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의 대규모기업들에 의하여 선정되는것과 관련된다.

현재 발전도상나라들에서는 주로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로부터 직접투자를 받아들여 물질기술적토대를 구축하고 그에 기초하여 발전된 자본주의나라기업들에 필요한 반제품이나 부분품을 생산보장하는 형식으로 GVCs에 참가하고있다.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의 기업들은 GVCs와 관련한 직접투자에서 기본적으로 두가지 요인을 고려한다. 하나는 제품의 생산비용이고 다른 하나는 무역거래비용이다. 즉 해당 나라가 가지고있는 노동력이나 자원을 리용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필요한 부분품이나 반제품을 생산공급할수 있겠는가, 관세를 비롯하여 무역거래과정에 지출되는 여러가지 비용이 GVCs가 원만히 진행될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낮은 수준에 있는가 등을 고려하여 해당 발전도상나라에 대한 직접투자를 결정한다. 그러므로 발전도상나라들에서 GVCs를 위한 산업분야는 철저히 대규모기업들의 이익의 견지에서 선정되며 발전도상나라들의 이익은 배제된다.

이것은 발전도상나라들이 자기의 실정과 이익에 맞게 나라의 경제구조를 목적의식적으로 개선해나가는데서 커다란 장애로 되며 오히려 경제구조의 편파성, 외국자본에 대한 의존성을 심화시킨다.

GVCs의 확대에 의하여 산업구조가 기형화되는것은 또한 GVCs가 확대되면서 다른 산업부문들로부터 노동력과 자본의 이동이 강화되는것과 관련된다.

한 나라가 GVCs에 참가하여 그것이 확대되게 되면 GVCs에서 거래되는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분야는 확대되는 반면에 다른 산업부문들은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 GVCs를 확대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정부의 장려정책은 해당 산업분야에서 높은 수익성을 가져올수 있게 한다. 또한 일단 GVCs거래관계가 형성되면 원자재구입과 제품판매비용이 감소되고 판로개척과 시장확대에 드는 비용이 절약되면서 수익성을 높일수 있다.

이와 같은 요인들은 GVCs를 위한 산업분야에서 수익성을 제고함으로써 다른 산업부문들로부터 노동력과 자본의 류입을 발생시킨다. 또한 GVCs와 관련된 해외직접투자를 통하여 해당 산업부문의 기술장비수준이 갱신되고 노동생산능률이 제고되며 산업규모가 확대되면서 다른 산업부문들과의 불균형이 조성되게 된다. 결국 해당 나라의 산업구조는 GVCs위주의 산업구조로 치중하면서 그의 종합적이며 다방면적인 발전을 억제당하게 된다.

셋째로, 발전도상나라들에서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것이다.

우선 발전도상나라들에서 GVCs에 종사하는 산업부문과 기타 산업부문들사이의 소득분배에서 불평등이 심화된다.

GVCs를 위하여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은 직접투자형태로 미숙련로동이 상대적으로 많이 요구되는 생산부문들을 발전도상나라들에도로 이전시킨다.

그러나 직접투자를 통하여 이전되는 생산부문들은 발전도상나라들의 생산력발전수준에서 보면 숙련로동이 상대적으로 많이 요구되는 생산부문들이라고 할수 있다. 이로부터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로부터 발전도상나라들에도로 GVCs확대를 위한 직접투자의 증대는 발전도상나라들에서 숙련로동에 대한 수요의 증대를 가져오고 이것은 숙련로동의 임금수준을 상승시킨다. 결국 발전도상나라들에서는 미숙련로동에 비한 숙련로동의 임금수준상승으로 임금수준의 격차가 심화되게 된다. 이것은 GVCs에 종사하는 산업부문과 기타 부문들사이에서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발전도상나라들과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사이의 무역이익분배에서도 불평등이 심화되게 된다.

발전도상나라들과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사이의 GVCs에서는 무역이익의 분배에서 심한 불평등이 존재하고있다. 실례로 피복제품과 관련한 GVCs에서는 이 분야에 종사하는 전체 노동력의 약 95%이상이 발전도상나라들에 있는 생산현장에서 일하고있지만 그

들에게는 완제품가격의 10%미만이 차려지고있다.

발전도상나라들의 생산업체들은 수많은 경쟁자들과의 치열한 경쟁속에서 반제품이나 부분품을 생산하여 대규모독점체들인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의 기업체들에 납입하고있다.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의 기업들은 해당 제품의 생산과 판매에서 핵심공정들인 설계, 판매, 광고, 기술개발, 상표관리 등을 틀어쥐고 막대한 이익을 얻고있다. 특히 현시기 제품의 생산과 판매에서 과학기술이 노는 역할이 강화되면서 첨단기술을 소유하고있는 대규모기업들이 더 많은 이익을 얻고있다.

이처럼 GVCs는 발전도상나라들에서 부문간소득분배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한편 무역이익분배에서도 발전도상나라들과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사이의 모순을 격화시킨다.

GVCs가 발전도상나라들의 경제발전에 미치는 부정적영향을 극복하자면 우선 발전도상나라들에서 쌍무적 및 다무적무역협상을 GVCs의 공정한 실현을 위한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는것이 중요하다.

GVCs를 통한 이익의 공정한 분배와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세계적범위에서 그리고 해당 GVCs의 구체적당사자나라들사이에 쌍무적 및 다무적인 보호수단을 마련하는것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GVCs의 이익분배에서의 불공평성과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의 전횡에 의한 발전도상나라들의 무역과 국내경제발전의 불안정성을 줄여야 한다. 실제로 아시아지역에서는 지역내 무역장벽을 없애거나 줄이기 위한 지역내 나라들사이의 협력관계가 확대되면서 아시아나라들사이의 생산기술적연계가 밀접해지고 GVCs의 거래량이 대폭 늘어났다.

아시아나라들은 지역내의 무역장벽을 없애고 무역에서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세안특혜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아세안자유무역지역을 형성하였다.

아세안특혜무역협정은 아세안나라들이 1차산품에 대한 관세를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1977년 2월에 체결되었다. 이 협정은 아세안나라들의 무역에서 1차산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때문에 1차산품에 대한 관세인하가 아세안나라들의 무역에 큰 영향을 줄수 있다는데로부터 체결되게 되었다. 이 협정은 아세안나라들사이에 거래되는 1차산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며 장기적으로는 지역내 공동시장을 창설하는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이 협정을 체결한 후 아세안나라들은 1차산품뿐만아니라 반제품 및 부분품을 비롯한 무역상품전반에 걸쳐 관세인하를 위해 적극 노력해오고있다. 그리하여 관세인하품목은 협정체결 당시에 71개였는데 2011년에는 2만여개로 늘어나게 되었다.

아세안나라들은 아세안특혜무역협정을 발전시켜 1993년부터 2008년까지 1차산품만이 아니라 공업품전반에 대한 관세를 0~5%로 인하할것을 목표로 한 공동효과특혜관세(CEPT)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아세안나라들은 아세안자유무역지역(AFTA)을 창설하고 나라들사이의 무역장벽과 무역불균형을 없애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있다.

아세안자유무역지역은 아세안성원국들사이에 관세를 종전의 20% 수준으로부터 0~5%수준으로 인하함으로써 2008년까지 유럽동맹이나 북아메리카자유무역협정과 같은 수준에 도달할것을 목표로 하였다. 1992년 1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수뇌자회의에서는 아세안자유무역지역을 창설하기 위하여 인도네시아의 제안에 따라 공동효과특혜관세협정이 체결되었다. 이 협정에서는 성원국들이 5~8년내에 이미 있던 20%의 관세를 0~5%로 낮추기로 하고 관세인하가 적용될 세부품목들을 규정하였는데 그 대상품목은 공업제품과 농산물가공제품 등 폭넓은 범위를 포괄하고있다.

GVCs가 발전도상나라들의 경제발전에 미치는 부정적영향을 극복하자면 또한 발전도상나라들사이의 GVCs를 확대하는것이 필요하다.

발전도상나라들은 경제발전수준이 유사하므로 나라들사이의 GVCs를 확대하면 발전도상나라들과 발전된 나라들사이에 GVCs를 진행할 때보다 보다 큰 이익을 얻고 GVCs가 발전도상나라들의 경제발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도록 할수 있다.

발전도상나라들에서는 자기 나라의 구체적실정과 이익의 견지에서 GVCs를 위한 산업분야를 바로 선정하고 해당 산업분야와 기타 부문들사이의 균형을 합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실시하는것을 비롯하여 GVCs가 실지 국내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3. 결론

현시기 GVCs에서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의 지배력이 매우 강하다. 어떤 형태의 GVCs에서든 발전된 자본주의나라 독점기업들의 요구와 이익에 맞게 무역거래가 진행되고있다. 이와 같은 GVCs는 발전도상나라들의 경제발전과 대외무역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있다.

GVCs가 발전도상나라들의 경제발전과 대외무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극복하자면 우선 발전도상나라들에서 쌍무적 및 다무적무역협상을 GVCs의 공정한 실현을 위한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는것과 함께 또한 발전도상나라들사이의 GVCs를 확대하는것이 중요하다.

나라마다 사회발전수준이 각이하고 자연경제적조건도 차이난다.

발전도상나라들에서는 GVCs가 나라의 경제발전과 대외무역에 주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자기 나라의 실정과 이익에 맞게 발전시켜나갈수 있는 합리적인 발전전략을 세우고 GVCs를 진행해나갈 때 그것이 나라의 경제발전과 대외무역발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수 있다.

실마리어 GVCs, 전문화, 구조적특징, 산업구조